

지역 매 아 리

고창경찰서 민원실

주민 눈높이 응대 적극실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민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친절 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친절인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 친절이 업무 중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최상의 대민행정을 실현해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는 등 주민에게 보다 따뜻한 인성과 마음이 담긴 대화 실사로 주민감각 차인행정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민원실장 천광중 경감은 "민원실은 높은 친절도와 고객감동을 주는 마인드가 요구된다며 민원서식 작성 등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친절히 도와줘야 하는 물론 늘 단정하고 화사한 미소로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직원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 체감안전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소한 곳에서부터 전 직원이 협력·노력 해 주민이 만족하는 고창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지방하천·소하천

환경정비·보수공사 마무리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하천, 소하천의 기능회복을 통한 재해예방과 미관개선을 위해 토사 준설사업, 기성제 정비 등 하천 환경정비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준설사업, 기성제 정비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계속되는 가뭄으로 하천구역 내 잡목과 갈대 등이 무성하게 식생하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잡풀 제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기성제 정비를 추진했다.

또한 내년에 퇴적된 토사로 인한 하천의 유수 지장으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의 하천재해가 예상되는 대상지를 일제 조사해 토사를 준설하고 활용도가 높은 준설토(모래)는 동절기 제설자재로 활용하여 예산절감 등에 이바지하고,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준설사업 완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온실텐트에서 추위 피해 가세요”

부안군, 겨울철 보행군민 온실텐트 호평

부안군은 겨울철 매서운 바람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온실텐트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부안군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내 버스 터미널 횡단보도 주변에 온실텐트를 설치하여 추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있어 부안군의 한파대책이 다스나마 군민들의 추위를 녹여주고 있다.

부안군은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시

내버스 터미널 부근 횡단보도 앞 인도와 주요 버스정류장에 온실텐트를 설치하여 신호를 기다리면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투명 비닐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또 4면이 막혀 있어 추운 바람을 막아 주고 있다.

신호 대기용 온실텐트는 가로 3m 세로 1.5m의 크기로 설치했으며 텐트 안에 온풍기를 설치하였고 성인 7~10여명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크기이다.

실제 온실텐트 안은 5~6도 가량 온도 차이가 나면서 주민들의 한성 질환을 예방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호를 기다리며 온실텐트를 이용한 다수의 군민들은 "횡단보도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실텐트를 설치하여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추운지 모르고 기다렸다면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에서는 올 여름에는 햇빛 그늘막을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수료식 성료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주민주도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위해 2018 하반기 도시재생대학(1단계) 기본과정을 마치고, 지난 30일 내장상동에 소재한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에는 로컬푸드사업단과 정읍플랜, 원예치유 농업연구소, 상상드론 등 4개 단체,

50여명이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과정은 참여 단체 주민들과 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주간 진행 된 수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와 주민이 주

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단순 이론·강의 중심이 아닌 교육생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교수법'을 활용하여 진행됐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도시재생 선진도시인 순천시를 방문하여 원도심 지역의 공방, 카페거리, 빈집게스트하우스, 청수골 공마당들레길 등을 견학하여 우수 성공 사례지역을 몸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환자의 조기치료 위한 노력 감사드립니다

정읍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최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8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전국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고 중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 주관하여 실시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국대회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노력해왔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은행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고고씽! 건강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건강 상담과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등 기초건강검사, 만성질환 합병증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18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전국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검진을 실시해왔다. 또한 시민을 상대로 건강강좌, 고혈압·당뇨 교실 등을 수시로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기해왔다. 아울러 읍면동 지역 보건사업 담당자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국 사망률 2위를 차지하며, 심각한 후유장애를 발생시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별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시민과 반려동물의 출입이 잦은 관내 천변 9개소 등 반려동물 산책로 14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정읍시,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산책로 14개소 설치 완료

정읍시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출입이 잦은 관내 천변 9개소 등 반려동물 산책로 14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산책 시 미처 배변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쾌적한 산책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소규모가구의 증가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지난해 전국 6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과 위생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타인과의 다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함으로써 산책 시 반려견주가 배변봉투를 놓고 왔더라도, 비치되어있는 배변봉투를 사용하여 즉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어 반려견주의 편의 제공과 산책로 주변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배변봉투함에는 배변봉투 뿐 아니라 반려견주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들 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의)이 적혀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시 배변봉투를 사용 후 반드시 봉투를 회수하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발휘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함께 해요’

정읍시, 동파 방지 비상대책 추진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동절기 상수도 동파 방지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정읍시 계량기 동파발생 건수는 2016년 99건, 2017년 28건, 2018년 634건으로 금년 1~2월에 지속된 한파로 인해 동파 발생건수가 예년 평균의 10배에 달했다.

특히 수도 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된 복도식 아파트, 연립 주택 등 벽체에 설치된 계량기와 한파기간 중 빈집 등 물 사용이 적은 가구에서 주로 발생했다.

올 겨울에도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

사와 함께 동절기 상수도 동파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동파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동파 대비 긴급복구자재와 급수차 등 비상급수 장비를 비축 중이고, 3개반 25명의 긴급복구반과 5개의 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하여 동파 계량기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용가에서도 동파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 패이나 한우로트 채우고, 외부 등에 설치된 계량기와 한파기간 중 빈집 등 물 사용이 적은 가구에서 주로 발생했다. 올 겨울에도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